

국외출장보고서
2019. 11. 30 ~ 12. 3
중국 청도 · 태안 일원

국외출장 보고서

중국 청도(靑島) · 태안(泰安)

2019. 12.

이민경 (회원종목지원부)



부산광역시체육회

1

출장개요

□ 목 적

- 글로벌 시대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양국간의 문화와 민간스포츠 외교를 통해 테니스 동호인들의 기량 교환과 문화와 양식을 습득하는 계기마련

□ 출장기간 : 2019. 11. 30(토) ~ 12. 3(화) 3박4일

□ 출 장 지 : 중국 산둥성 청도시·태안시 일원

□ 출 장 자 : 회원종목지원부 이민경

□ 주요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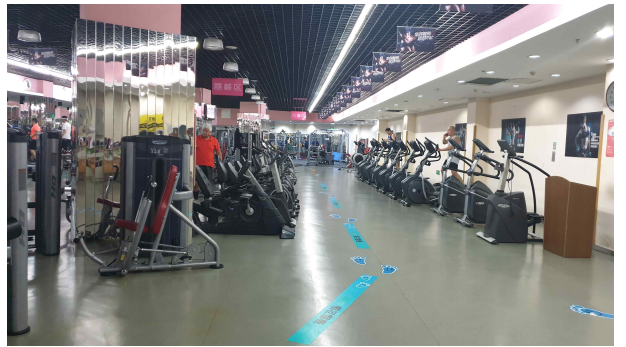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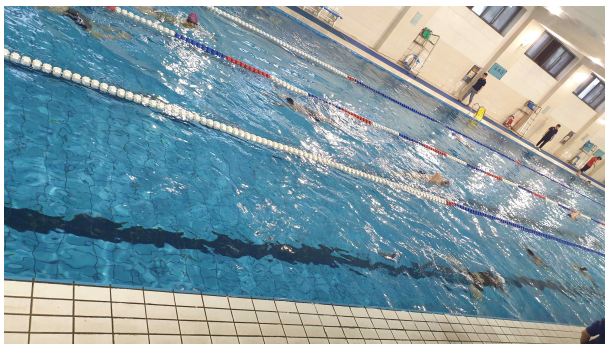
일 자	주 요 일 정
11/30(토)	- KE 899편 부산-청도 10:45 ~ 11:55 김해국제공항
	- 청도 체육지가호텔(중식 및 개인정비)
	- 청도시 신흥체육관 견학
	- 환영만찬(청도)
12/1(일)	- 중국 산둥성 태안시 이동(5시간 30분)
	- 중국 명주오 산타이 호텔(중식 및 개인정비)
	- 중국 태산 방문
	- 환영만찬(태안)
12/2(월)	- 태안시테니스협회 · 청도시테니스협회 · 부산시테니스협회 국제친선교류 테니스대회
	- 중국 청도시 이동(5시간 30분)
	- 환송만찬(청도)
12/3(화)	- KE 890편 청도-부산 13:05 ~ 16:00 청도국제공항

2

주요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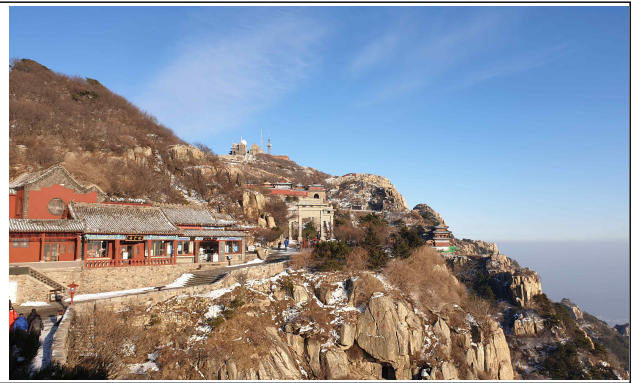
○ 청도시 신흥체육관 견학

- 견학일시 : 2019. 11. 30(토) 16:00 ~ 17:30
- 견학장소 : 중국 청도시 서주로 138 코아빌딩 신흥체육관
- 참석인원 : 부산시테니스협회 25명, 청도시테니스협회 5명
- 시설대표 : 청도시테니스협회 유재신 회장
- 시설구성 : 휘트니스, 테니스장, 당구장, 스쿼시장, 농구장, 수영장
탁구장, 기수련장, 배드민턴장, 복싱장 등



○ 중국 태산 방문

- 방문일시 : 2019. 12. 1(일) 15:00 ~ 17:00
- 견학장소 : 중국 산둥성 중부 태안
- 참석인원 : 부산시테니스협회 25명, 청도시테니스협회 3명
태안시 테니스협회 3명
- 태산소개 : 중국태산은 중국 오악의 첫 번째 산으로 해발 약1,545m로 진시황을 비롯하여 중국 고대 제왕이 봉선의식을 행한 신성한 산으로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



○ 국제친선교류 테니스대회 (복식 · 혼합복식 · 단체전)

- 대회일시 : 2019. 12. 2(월) 10:00 ~ 12:00
- 참가대상 : 태안시테니스협회 · 청도시테니스협회 · 부산시테니스협회



○ 환영(청도·태안) 및 환송(청도) 만찬

▶ 청도 환영연

- 일시 : 2019. 11. 30(토) 18:30
- 장소 : 청도시 체육지가호텔 만찬장
- 주재 : 청도시테니스협회 유재신 회장



▶ 태안 환영연

- 일시 : 2019. 12. 1(일) 18:00
- 장소 : 태안시 명주오 산타이 호텔 만찬장
- 주재 : 태안시체육국 국장 및 임광중 회장



▶ 청도 한송연

- 일시 : 2019. 12. 2(월) 19:00
- 장소 : 청도시 중국음식점
- 주재 : 청도시테니스협회 유재신 회장



-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는 중국 청도와 18년째 국제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한 국가(도시)와 꾸준히 정례화 하여 교류하는 것은 부산시체육회 74개 회원종목단체중 손에 꼽을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다.
 - 청도시테니스협회 유동구 초대회장을 시작으로 첫 민선회장이신 유재신 회장까지 청도 테니스가 발전하기 까지 지대한 공이 있으신 분들이다. 특히 청도시테니스협회와 부산시테니스협회의 꾸준한 교류를 위해 가교역할을 한 연변시테니스협회 김정철 회장은 교류일정을 계획하고 청도와 태안 까지 함께 일정을 하면서 통역관 역할을 하는 등 이번 교류에 아주 큰 도움을 주신 분이다.
 - 교류 첫날 청도국제공항에서 숙소로 향한지 10분도 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일정에는 테니스장을 방문하여 친선교류대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우천으로 인하여 경기가 취소되어 청도테니스협회 유재신 회장이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신흥체육관」을 견학으로 대체하였다
- 대지면적 8,500평의 규모로 수영장, 배드민턴장 3개소, 테니스장 6면, 족구장 농구장, 피트니스, 격투기장, 복싱장, 태권도장 당구장, 탁구장 등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은 자본주의 공산국가로서 부(富)와 대륙의 스케일이 합쳐져 민간체육시설의 운영규모도 상상 그이상이다.
- 견학을 끝내고 만찬장으로 들어선 순간 청도시테니스협회 임원들이 반갑게 부산테니스협회 동호인들을 맞아주었다. 특히 드라마를 통해 한국말을 배웠다며 연신 우리에게 유창한 한국말로 눈을 마

주치며 대화를 했던 반면 우리는 번역기를 통한 어설픈 중국말로 끊이지 않는 웃음속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찬을 즐겼다. 각자 도시를 대표하는 선물을 교환하고, 음식을 건네며 “위.하.여”를 외치고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환영만찬을 끝으로 첫날의 일정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 청도는 19세기 말 독일에 의해 맥주공장이 세워지면서 미국, 독일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맥주 도시이기도 하다. 둘째날 청다오 맥주박물관 견학을 기대하였으나 테니스 교류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5시간을 달려 산둥성 태안시테니스협회를 방문하여 교류를 진행하였다.
- 도착 후 우리가 향한 곳은 태안시에 위치한 태산(泰山)이었다. 해발 약1,545m로 숲이 울창하기보다 돌산이라고 하기에 적합했던 이 산은 비가 왔던 청도와는 달리 눈이 내려 곳곳에 녹아있는 흔적을 볼 수가 있었다. 산의 정기를 받기 위해 케이블카를 타고 산의 중턱까지, 정상까지는 도보로 올라가 다음날 경기를 위해 전지훈련이라고 할 만큼 열성적으로 등반에 임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 갈 때쯤 하산을 하고 태안시에서 마련한 두 번째 환영연을 끝으로 이틀째 여정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 셋째날 아침, 일찍 조식을 마치고 다들 기다리던 테니스 경기를 임하기 위해 숙소 근처 테니스장으로 이동하였다. 중국은 공산당 1당 체제로 당 간부들이 협회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당서열 1위 태안시체육국장과 청소년체육운동학교 교장선생님, 태안시테니스협회 임광중 회장님을 비롯하여 중국 체육관계자 임원진들의 참석으로 3개 도시와 동시 교류를 진행하였다.
-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테니스는 당의 간부정도나 치던 종목으로 지금은 많이 보편화 되고 그 수준도 꽤 높아졌다고 한다. 관계

자의 말에 따르면 테니스 수준향상에 부산시테니스협회 동호인들의 지대한 공이 있다고 말 할 정도였다.

- 우리가 친선대회를 한 날짜가 12월 1일 월요일이었는데 주말이 아니어서 동호인들이 많이 참가하지 못해 아쉬웠으나 청도시테니스협회 임원진과 태안시테니스협회 임원진 그리고 몇몇 선수들이 함께 복식·혼합복식·단체전 등 2시간동안 경기를 마음껏 즐겼다. 특히 유재신 회장님(청도)과 김영철 회장(부산)님의 친선 경기로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경기가 끝나고 우린 다시 청도로 이동을 했다. 이동시간이 왕복 11시간이었는데 태안과의 교류는 괄목한 성과라 하겠지만 3박 4일중 하루를 이동시간에 허비한건 담당자로서 매우 아쉬움이 크다. 청도로 도착한 우리는 마지막 밤인 3일째 저녁 유재신 회장님의 환송연을 끝으로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했다.
- 마지막날 아침, 청도시 관계자들과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번 교류에 추억을 장식할 사진촬영을 끝으로 공항을 향했다. 마지막 까지 청도시테니스협회 회장 및 임원분들의 따뜻한 배웅과 부산에서 다시 만날 기약을 한 채 부산-청도국제친선교류대회는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 이번 교류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던 점은 청도시테니스협회 뿐만 아니라 태안시 테니스협회와 교류 물꼬를 튼 점이고, 반면 아쉬웠던 점은 일정시간에 비해 이동시간이 다소 길었던 점과 일과를 미리 안내 받지 못하여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일정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 또한 담당자로서 이번 교류에 참여하면서 교류의 방향성을 잡아본다면 각 종 대회와 접목하여 교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 점이다. 이를테면 부산으로 초청시 협회장기(배)나 시장기(배)에 국제교류

를 접목하여 진행을 한다거나 중국에서 큰 대회가 있을 때 부산 선수단이 방문하여 경기를 관전하고 경기에도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산시테니스협회 김영철 회장님께 의견을 전달 하였으며 흔쾌히 검토 해보시겠다고 수락해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청도시·태안시테니스협회와 교류는 이로써 모두 끝이 났으며 2020년 부산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해 본다